



나눔이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의 아름다운 이야기”



Contents



03 여는글 -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 용혜원

-
- 04 말과 이야기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시간
 - 06 나눔의집 위탁 놀이치료사로 일하며
 - 07 마음대로 그리기
 - 08 행복을 주는 음악치료
 - 09 함께여서 더 행복한 순간
 - 10 나눔의집 한가위 보내기
 - 11 나눔의집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
 - 12 나눔의집 이모저모
- 우리 이렇게 지냈어요!!!

 - 14 자원봉사 현황
 - 15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 19 후원 안내 및 세입 지출
 - 20 나눔의집 안내도 및 장애인생산품 소개
-

알림마당

최근 충주 시내에서 나눔의집을 사칭하며 물품(반찬, 껌, 떡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지역 업체(식당, 슈퍼 등)에 방문하여 물건을 판매하지 않으며, 위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행인 : 나눔이네 사람들
편집인 : 문미향, 이정화, 오상민
인쇄처 : 디자인점수함 TEL : 043) 855-2231

(우) 27489 충북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9
TEL : 043) 843-9912, 844-8150
FAX : 843-991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을 수령 후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나눔의집으로 연락주세요~

나눔의집 홈페이지
<http://www.cjnanum.or.kr>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당신을 처음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느낌,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객식이나 체면 차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같아
등지를 잊은 새가
새 등지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 출처: 용혜원님의 시 <함께 있으면 좋은사람> -

나눔의집과 오랜 시간 변함없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
후원자님, 자원봉사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과 이야기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시간

찾아가는 동화방 강사 이 송희



근오씨, 미정씨, 보라씨, 소연씨, 아름씨, 송여씨 나눔의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이분들에게 나는 전래동요를 들려주고 그림책을 읽어 준다. 올해 2월 11일 처음 만났다. 처음에는 이야기와 나에게 관심 없어 보이던 이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가면 웃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으며 활짝 웃는다. 시간이 보물 같게만 느껴진다.

근오씨는 요즘 전래동요 〈겨울바람〉에 쑥 빠져 있다. “손이 시려워, 꿩/ 발이 시려워, 꿩” 하고 이어지는 동요를 들을 때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몸을 움직이며 소리 내 웃는다. ‘끙’ 하고 내가 소리 내면 아주 좋아하며 따라하려는 듯 입술을 꼬물거리기도 한다. 근오씨는 말과 소리의 재미를 알아 가고 있다.

갓난아기 같은 미정씨에게는 전래동요 〈별 하나 꽁꽁〉을 많이 들려주는데 그럴 때는 눈동자를 굴리면서 해맑게 웃는다. 그림책 〈냠냠냠 쪽쪽쪽〉을 들려줄 때는 “냠냠냠 쪽쪽쪽”이라는 말 때문인지 늘 입맛을 다신다. ‘꽁꽁’과 ‘냠냠냠 쪽쪽쪽’ 소리에 반응하는 듯하다.

보라씨는 전래동요 〈잘잘잘〉을 가장 좋아하는데 내용을 훤히 알고 외우기까지 한다. “보라씨, 무슨 이야기 들려줄까” 하고 물으면 “자아잘”하고 대답한다. 내가 “하나 하면 할머니가 호박을 이고서 잘잘잘”하고 읊기 시작하면 웃으며 “여덟 하면 여럿이서 여행을 한다고 잘잘잘”까지 거의 다 따라 한다. 보라씨는 말의 재미와 이야기의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소연 씨는 전래동요를 들려줄 때는 가만히 있는데 그림책을 읽어 주면 뚫어지게 그림을 본다. 어느 날 그림책 〈시리동동 거미동동〉을 읽어 주는데 책장을 다 넘길 때까지 그림을 보고 있더니 그 뒤로 그림을 보는 날이 많아졌다. 소연 씨는 이야기보다 그림에 관심이 있어 보인다.

아름 씨는 자는 척 할 때가 많은데 전래동요 〈잘잘잘〉이나 〈꼬부랑 할머니〉를 들려주면 눈을 가늘게 뜨고 시익 웃기도 한다. 그림책을 보여 주려 하면 눈을 아예 감아버린다. 보는 것은 싫은데 듣는 것은 좋아하는 것 같아 요즘은 전래동요만 들려준다.

송여 씨는 책을 읽어 줄 때도 손가락으로 책장 넘기는 데만 집중해서 이야기는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읽어 주려는 책보다 침대에 놓아둔 그림책 〈두드려 보아요〉에 눈길을 돌려 내가 집어 드니 활짝 웃었다. 여러 번 읽어 준 그 책을 기억하고 있으니 분명 이야기도 듣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여섯 분 모두 개성이 다르고, 좋아하는 이야기도 다르지만, 다들 소리의 재미와 이야기의 즐거움을 조금씩 알아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분들이 이야기와 소리에 자극받아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나는 나눔의집으로 간다.



『행복이 넘치는 나눔의집 위탁 놀이치료사로 일하며』

충주징검다리언어심리센터 놀이/미술치료사 김진경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 징검다리언어심리센터에서 놀이/미술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김진경입니다. 나눔의집과 인연을 맺게 된지도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눔의집으로 위탁놀이치료를 들어오면서 낯설어하던 제 자신과 이용인분들의 어색함이 어느덧 이용인분들의 반가운 인사로 변해 제가 '이곳에 몸담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를 하는 이용인들은 매일 매 시간마다 눈빛, 행동들이 모두 다릅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매우 기분이 다르지만 눈빛으로 마주하고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여 치료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용인들과 쉽게 관계형성이 될지 생각하고 좀 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읽고 싶어졌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용인들마다 좋아하는 매체들을 분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매체들을 이용하여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느꼈던 생각, 그리고 깨달음.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치료사로서 저에게 많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나무 같은 치료사가 되기 위해 꿈꿔 왔으며 앞으로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하고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의집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처럼 변함없이 이용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고 그들의 삶 안에서 함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지치기 마련이고 저도 역시 치료사로 일하며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빽빽한 일정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이용인들 그리고 그들의 곁에서 함께하는 나눔의집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생각한다면 제 자신도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눔의집 위탁 놀이치료사로 일하면서 시설내의 사회복지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용인분들을 대하여 휴먼서비스인 사회복지를 실천하면서 힘들 수 있을 텐데도 내색하지 않고 항상 미소를 짓고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점을 본받아 좋은 위탁 치료사가 되겠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요일에 들어가서 상담을 진행하지만 많은 배움을 가슴에 안고 갑니다. 앞으로도 이용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치료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게 가슴이 뛰는 일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시는 나눔의집 모든 선생님들과 이용인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웃음이 가득한~그림그리기~ 마음대로 그려봐!!

미술치료 강사 김화선

저는 언제나 나눔의집에 들어서면 그 누구와 마주치더라도 절로 웃으며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대로그리기” 시간은 어떠한 주제든 이용인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작업하는 시간입니다. 손의 움직임이 조금 씩 다른 신체성이 표현되어 때로는 멋진 작업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크레파스로 고적이고, 칠하고, 붓으로 꾹꾹 누르고, 문지르고, 비비고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특히 언제나 열심히 그리는 삼총사인 선영 씨, 미영 씨, 현숙 씨가 계십니다.

자신의 그림을 봐달라고 활짝 웃으며 저를 부르는 눈이 마주치는 순간!! 함께하는 즐거움과 충만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정리할 때 도와주시는 삼열 씨의 따뜻한 마음도 감사하고, 나눔의집 선생님들의 도움에 항상 감동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함께 하기에 “마음대로 그리기” 시간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용인분들과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이용인분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마음대로 그리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눔이네 사람들.. 07



행복을 주는 음악치료

음악치료사 김 병 진

음악이 없는 세상을 상상 할 수 있을까?

음악이 없는 광고방송, 친송가가 없는 예배, 음악이 없는 댄스 등뿐만 아니라 음악은 각 시대가 가지는 문화현상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음악은 가장 오래되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의 수단이며 비언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써 특별히 언어사용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이라도 치료사와 함께 연주하면서 분노나 기쁨과 같은 자신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음악으로 소통 한다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인 것 같다.

이스라엘의 성서에도 음악치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원전 1000년경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윗의 수금 연주(하프)를 듣고 병이 치유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다윗은 목동이었으며 훌륭한 음악가이기도 했는데 다윗이 사울을 위해 하프를 연주하자 왕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고 사울 왕이 제정신으로 돌아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음악은 신비롭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은 음악을 '영혼의 약'이라고 불렀다.

현대에도 음악치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사회성 발달에 효과적임을 널리 알려지고 증명되었다.

지금까지 음악치료를 접해오면서 음악이 가지는 힘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 그러한 음악의 영향력이 학문적, 과학적으로 정립되어 이제 음악치료는 결코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으며 특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노인들 및 신체적,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악은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함께여서 더 행복한 순간

사회복지사 정 해 경

우리는 살면서 기분 좋은 날들도... 부끄럽고 민망한 날들도... 자랑스럽고 뿌듯한 날들도 경험합니다. 나르샤 호실 이용인분들도 많은 경험을 하며 그만큼 성장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믿으며 권오국씨의 생일을 소개 할까 합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많아 하루에도 몇 번씩 누나가 언제 오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에 괜스레 소리 한번 질러 보다가... 감춰진 속마음을 표현...

“생일날 누나가 왔으면 참 좋겠다~” 하던 권오국씨의 생일이 9월 25일이었습니다.

비록 보고 싶은 누나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조촐하게 담당과 함께 외식도 하고 호실에서 생일파티도 진행 하였습니다. 물론 생일이라고 별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호실 이용인분들과의 생일 축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특별한 날 이었을 것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생일을 맞이하면 한 살 더 나이를 먹는 게 싫을 때도 되었을 텐데 책상 위에 몰래 올려 둔 짧은 메모와 믹스커피 한 개를 권오씨에게서 받고 보니 생일은 함께여서 좋은 거구나!!! 힘이 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9월 28일에 권오국씨 누나들이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제법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입니다.

생일을 누군가에게 축하 받지 못했다면 이 좋은 계절을 핑계 삼아 나르샤 호실 식구들이 대신 여러분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마음이 풍성한~ 나눔의집 한가위 보내기

사회복지사 정상숙

두둥~ 나눔의집에 한가위 보름달이 떴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가족과 친지들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 한 가득입니다. 나눔의집에도 멀리 있는 가족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이용인이 원 가정에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지요. 나눔의집 가족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낼까요. 연휴 첫날, 나눔의집 가족들은 투호 놀이를 합니다. 투호놀이가 예전에는 궁중에서나 양반들이 주로 하는 놀이였다고 하네요. 너도나도 항아리에 화살을 넣어보려 애쓰지만 잘 들어가지가 않네요. 담당 직원들이 은근슬쩍 넣어주기도 하고 아예 대놓고 항아리 앞에 가서 화살을 넣어 봅니다. 하하하~ 방법이 다르면 어떤가요. 상품도 타고 즐거우면 그만이지요^^

추석날은 차례상을 차려 온 호실 이용인들과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어 먹습니다. 홍동 백서같이 거창하게 차리지는 않지만 먹고 싶은 과자, 과일들을 준비하고 거기에 막걸리도 한잔씩 카~ 올 추석에는 재활원으로 이사 가신 정수씨가 방문하여 오랜만에 내담 호실 이용인들과 회포도 풀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아쉬운 마음을 안고 재활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맛난 음식도 먹고, 오랜만에 친구도 만났고, 보름달이 두둥실 떠오른 한가위 밤에는 무엇을 할까요. 각 호실 이용인들이 삼삼오오 마당에 나와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연휴 3일째 되는 날은 나눔의집 노래자랑이 열렸습니다. 나눔의집 명가수 정구씨가 집에 가서 아쉽기는 했지만, 환수씨, 오국씨가 분위기를 잘 살려주었어요. 귀옥씨도 운동으로 열창을 해주시고, 경탁씨, 일홍씨, 종진씨, 응연씨, 영기씨~ 저마다 신청곡을 청해서 ‘나도 가수다’ 하는 맘으로 노래솜씨도 뽐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소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을 때마다 함박웃음을 지어주어서 서로 선물을 나누어 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이용인들이 동그란 보름달처럼 둥글게~ 둥글게~ 맘껏 웃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용인들도 보름달을 보며 빌었던 소원이지 않을까요. 모두모두 행복합시다~



나눔의집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

사회복무요원 임동규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무요원 임동규입니다. 이번에 저는 나눔의집에서 2년이라는 사회복무요원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나눔의집에서 복무한지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걸 보니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많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곳에서의 생활이 즐거웠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 할 때 새로운 환경 때문인지 낯설기도 하고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낯설음은 익숙함이 되었고 두려움은 즐거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주변의 많은 복지사님들의 응원과 도움이 컸습니다.

가지고 있던 두려움 중 가장 커던 것은 이용인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용인분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해와 편견들이 많아서 이곳에서 오해와 편견을 이기고 잘 지낼 수 있을까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해와 편견도 잠시 이용인분들이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니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생각도 들었고 이제는 오히려 오해와 편견이 아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며 이런 귀하고 소중한 경험을 사회복무요원 시간동안 쌓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추억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지내겠습니다.

추운겨울이 다가왔는데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나눔의집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의집 사람들... 11

이런 일 저런 일



- 일시: 7월 1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2019년 상반기 사업평가



- 일시: 7월 12일
- 장소: 라이프볼링장
- 내용: 나눔의집 블림동호회 진행



- 일시: 7월 15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전기 안전 교육



- 일시: 7월 17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응급처치 교육(실폐소생술)



- 일시: 8월 1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교육



- 일시: 8월 9일
- 장소: 목동 아이스링크
- 내용: 겨울왕국 뮤지컬 관람

이런 일 저런 일



- 일시: 9월 9일
- 장소: 롯데마트
- 내용: 장보기 맛보기 프로그램 진행



- 일시: 8월 27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충청북도 중원교육문화원
“찾아가는 신나는 동극공연”



- 일시: 9월 1일
- 장소: 호암예술관
- 내용: 제4회 충주시 어울림 누리가요제
나눔의집 소리모아중창단 공연



- 일시: 9월 17일
- 장소: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
- 내용: 2019 충북 장애인 어울림 보ち아대회 참여



- 일시: 9월 18일
- 장소: 원주 피노키오휴양림
- 내용: 나눔의집 숲 캠프 진행



- 일시: 9월 26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신규직원 채용 면접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 매월 후원해주신 후원금은 나눔의집 이용인들과 시설운영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7/1
~9/30

자원봉사현황



• 마사지봉사

김인성, 이수덕, 이현수, 이혜원, 이경선, 홍미경, 이봉순, 최승길, 이명실

• 미용봉사(대한미용사회 총주시지부)

김상식(율레헤어스케치), 김연희(머리가꾸기), 김정기(곱디고운머리방), 김지성(김지성미용실),
김하은(팜팜미용실), 박미자(엠제이헤어), 박수애(수아헤어라인), 이순옥(이미정미용실), 이정윤(정윤헤어),
임정애(립스헤어), 표혜영(엘트레헤어)

• 종교활동 지원

광휘교회 이천우 목사님, 수안보장로교회 최인철 목사님, 숭덕교회 길용철 목산미, 양의문교회 류성열 목사님

• 치과진료봉사

이치과의원

• 봉사 단체

나눔 사랑사회, 주나루, 들꽃 봉사회, 케어메디칼, 탄금 봉사회, 햇살 봉사회

• 중학생, 고등학생

강서연, 강채연, 공윤지, 권영웅, 김가영, 김나경, 김나은, 김다솜, 김동희, 김민서, 김은비, 김정민,
김주연, 김태훈, 김혜원, 김호정, 민예원, 박민영, 박민지, 박서현, 박수민, 박준배, 박한설, 박효준,
반기영, 배수하, 순지희, 신승민, 신주원, 신준혁, 안은영, 안재인, 안채림, 양시철, 양희원, 오재성,
우희원, 원다현, 원다혜, 원유민, 윤지인, 윤 혁, 이금민, 이미정, 이민서, 이소진, 장민영, 전하린,
전해솔, 정재학, 정찬미, 조성준, 조유미, 조찬영, 지승후, 지유림, 진은민, 차현정, 최유나, 추미현,
한상원, 한지민

• 일반인

심예온, 허현지, 오윤아, 신지민, 남동훈, 박태림, 박찬준, 박영서, 성하은, 서정호, 손지현, 이우연,
오정인, 이소미, 윤지은, 문선영, 김세영, 임지영, 김수빈, 최혜림, 손혜언, 김혜원

운영위원회



박 대 응

예기종합건축사무소

류 근 화

노무법인 화원

장 준 영

(주)푸른솔휴먼뱅크

조 영 숙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조 수 정

나눔의집 이용인 부모 대표

김 종 진

나눔의집 이용인 대표

정 해 경

나눔의집 종사자 대표

유 명 철

나눔의집 원장

이 용 선

충주시 노인장애인과

조 성 육

문경대학교 재활상담복지학과 교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7.1
~9.30

방/문/후/원



경대수	맥심모카골드(240개입) 1곽, 복숭아 2box
에스원 총주지사	황태채(200g) 24봉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양파장아찌 172개
영신내추럴	무김치(10kg) 2봉지
공선희	자두 40kg
영진엘리베이터(주)	쌀(10kg) 36포대
권인중	치약50개, 바디크림 90개, 클렌징크림 135개, 필링젤 54개, 바디클렌저 42개, 트리트먼트 42개, 샴푸 63개
이근순	비티500(20개입) 1box
김대섭	동지냉면 2봉지, 진짜쫄면 1봉지, 마라탕면 1봉지, 열라면 1봉지, 짜파게티 2봉지, 과자 7봉지, PT음료 4개, 참외 2봉지, 초코파이 1곽, 포도1box
이근우	의류(하의) 96개, 의류(상의) 61개
나눔사랑회	초코파이(12개입) 8곽
임광운	고춧가루 20근
총주사과한과(주)	한과 4box
장재호	의류(하의) 91개, 의류(상의) 39개
다래떡볶이	어묵 8봉지, 떡볶이 9봉지, 떡볶이 소스 10kg
조익주	비나나(13kg) 1box
대장군식당	진라면 1000개, 우유 432개, 소고기 10kg, 국수(3kg) 36개, 송편4box
축협	한우 32kg
박기은	복숭아 1box

총주무예마스터십	의류(하의) 104개, 의류(상의) 204개, 물티슈(250개입) 19box
배효진(손지훈)	해태음료세트(10개입) 1곽
총주사랑회	액체세탁세제(15L) 17통, 휴지(30롤) 23봉 지, 치즈(350g) 42개
배효진(손지훈)	해태 건강음료세트 1box
총주사청	밀다운물티슈 20box, 화장지6set, 물티슈 2box, 세탁세제5box, 풍onga11개, 코렐세트 11 개, 하인비누 11개, 가루세제 11개, 목장갑 11개, 고무장갑11개, 휴대용기스렌지 11개
병아리눈물	옥수수(30개입) 5자루
푸드뱅크	던킨도넛 8곽, 체육복 130개, 키세스초콜릿 120개, 한돈세트(3kg) 15box, 체육복상하세 트 17개, 맥스칩 120개, 생닭 50마리, CJ미 트볼 18봉지, 체육복 24개, 김자(20kg) 5포 대, 샴푸 27개, 미트볼(6개입) 24봉지, 두부 48개, 험박스테이크 88개
삼마메디컬	송편9곽, 팥떡 12곽, 김자(20kg) 2box
한국도로공사 총주지사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성모요양병원	사과(10kg) 1상자
햇살봉사회 적십자	수박4통
승덕교회	버터링 8곽, 빠디코코넛 8봉지, 초코칩 23곽, 오리자널블랙케크(12개입) 8곽, 쿠크다스 7곽, 오리온초코송이 8곽, 빈플티 80장
홍루이젠	샌드위치 75개
안혜숙	토마토 2box
홍승현	옥수수 3자루
양의문교회	동부생협 12봉지
홍진환경	단팥빵 150개, 카스테리빵 186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매월 후원해주신 후원금은 나눔의집 이용자들과 시설운영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7/1
~9/30



7월~9월 신규후원자

김동운, 임종해, 오명희



단체 및 특별후원

- | | | | | |
|--------------|-------------|--------------|----------------|--------------|
| · 쭈거성에너지 | 〈정미희 사과게장〉 | · 성호종합주방 | · 대한예수교장로회 | · 흥이소아과 |
| · 방주자원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디자인잡수함 | · 충주노회 | · 주모닝마트 |
| · 오성카페트 | · 김앤굿메디컬의원 | · 해피빈 | · 신림가나안교회 | · 영은감리교회 |
| · 푸른솔 주유소 | · 성모오양병원 | · 주대텍스톤 | · 진정언이빈후과 | · 터미널주유소 |
| · 교현중일악국 | · 이형선복지재단 | · 승덕교회 | · 현대의료기 | · 흥진환경 |
| · 비엔케이코리아(주) | · 한국전기안전공사 | · 적십자·햇살봉사회 | · 동산어린이집 | · 무학시장상인회 |
| · 우림산업 | · 충주자지사 | · 현대사무용기구 | ·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 | · 영진유통 |
| · 한국도로공사 | · 노무법인 회원 | · 대원고등학교 | · 충주타이어미트(호암동) | · 태성수산 |
| · 충주자지사 | · 성충문구도매 | · (조규석 외 39) | · 호암임대미룸 | · 나눔의집 전직원 |
| · 그랜드피자(칠금점) | · 일동종합식품 | · (주)슈롬(아이더) | · 드림유 웨딩홀 | · 박통상회 |
| · 샘물중앙교회 | · 한미음악국 | · 제지들성결교회 | · 주에이에스엔지니어링 | · 오미희내과 |
| · 은성미가 | · 디래밸분이 | · 혁성OA | · 주케이피에프 | · 푸른누리염증조합법인 |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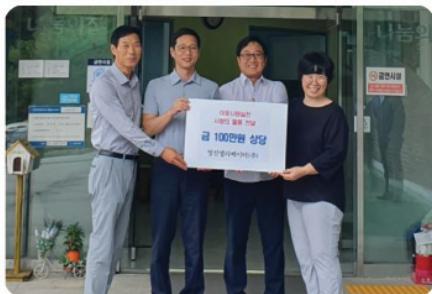
• 7/21 총주사랑회 후원물품 전달 및 봉사활동



• 8/13 (사)미용사회 총주지부 미용 봉사활동



• 8/27 나눔사랑회 후원물품 전달 및 봉사활동



• 9/4 영진엘리베이터 후원물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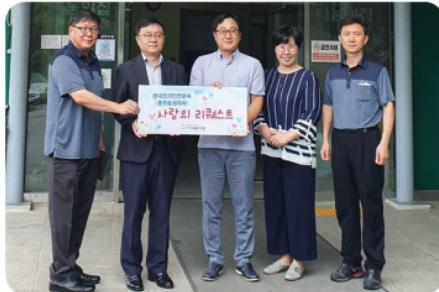


• 9/9 에스원 총주지사 후원물품 전달



• 9/9 한국도로공사 총주지사 상품권 전달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 9/9 한국전기안전공사 충주음성지사 후원금 전달



• 9/10 S-OIL 주유소 사회봉사단 후원금 전달



• 9/19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 후원금 전달 및 봉사활동



• 9/26 충주시 여성예비군 후원물품 전달 및 봉사활동



• 10/2 섹소폰나라 동호회 재능기부



• 10/10 적십자 헛살봉사회 후원금 전달 및 봉사활동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 정기후원** : 매월 1구좌(5,000원)이상 후원신청(전화 또는 신청서 작성)→ 지로나 자동이체로 입금 → 소식지 발송 입금확인
• 지로입금방법 : 본 원에서 발송되는 지로로 입금
• 자동이체방법 : (1) 거래하시는 은행에 통장,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어 본 원의 계좌로 자동이체신청
(2) 나눔의집 홈페이지에서 후원신청이 가능하며, 나눔의집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셔도 됩니다.



물품후원 : 생활필수품, 교재, 교구, 의류, 간식 등



자원봉사활동

- 생활보호 서비스 보조(목욕, 식사, 밀벗되어주기, 산책, 종교활동 등)
- 가족 봉사, 미용봉사, 노력봉사등



해피빈 후원 해피빈은 nhn(**NAVER**)이 운영하는 공익포털사이트입니다.

네이버 회원이면 누구나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콩을 나눔의집 모금함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http://happylog.naver.com/cjnanum.do>



후원계좌번호

- | | | |
|-------------------------|--------------------------|---------------------------|
| • 지로 : 7607189 | • 국민은행 : 402-01-0388-399 | • 하나은행 : 691-810006-26805 |
| • 신한은행 : 100-011-220720 | • 농협 : 417015-51-051393 | • 우체국 : 301507-01-002801 |

보내주신 후원금과 물품은 중증 장애인의 보육 및 치료, 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됩니다.

2019년 3분기(7월~9월)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



세	입	세	출
2분기 이월금	43,125,820	제수당	3,110,850
비자정	25,478,440	회의비	-48,100
지정후원금	4,960,000	기티후생경비	4,368,240
법인전입금(지정후원)	44,690	일용집급	990,000
승번기 예금이자	2,191	여비	424,000
		수용비 및 수수료	4,585,840
		공공요금	353,550
		치량비	651,210
		기타운영비	630,000
		자산취득비	435,000
총수입 / 73,611,141원		3분기 지출금 / 27,301,320원	
3분기 이월금 / 46,309,821원			



찾아오시는 길

자 가 용 : 충주IC → 충주방향 → 건국대 사거리(우회전) → 0.8km 직진 → 달신 사거리(좌회전) → 1.3km 직진
(우회전) → 150m 직진(개나리원룸 좌회전, 표지판 참조) → 300m 직진 후 우회전 언덕 끝자락

대중교통 : 충주 터미널 → 수안보 방향 버스 승차 → 수청골입구에서 하차 → 150m 직진 (개나리 원룸 좌회전,
표지판 참조) → 300m 직진 후 우회전 언덕 끝자락

장애인보호작업장 월코



www.ksdw.or.kr

사회복지법인 승덕원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선물세트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주문상담 : 충북 충주시 동랑면 대전준길 301 T. 043) 851-1890 F. 043) 855-1892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종이컵 및 상점케이스가 필요하신분은 ZAN으로 연락주세요
T 043) 856-4003



충주시 공식 1호 푸드 트럭



'돌암지 산책'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느끼세요.

<http://www.ksdw.or.kr/cjol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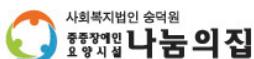
운영: 사회복지법인 승덕원 충주어울립센터

메뉴: 커피 & 차 및 간식류

장소: 호암지 내 생태전시관 앞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월~금)

문의: 043) 856-0509



(우) 27489 충북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9 || Tel : 043) 843-9912 || Fax : 043) 843-9911

<http://www.cjnanum.or.kr/>